

2011학년도 교육과정 이행기 초등사회과 수업실천 양상

- 6학년을 중심으로 -

이 동 원

경인 교육대학교

I. 서론

2011학년도 1학기 초등 6학년의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그에 따른 수업실천 양상은 교육과정 이행기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일로 인해 시기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10개 교과와 창의적 재량활동을 가르쳐야하는 초등 교사에게 특정 교과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전 교육과정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과 생략된 내용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라는 주문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선다. 게다가 가르칠 내용 양 과다의 대표적인 영역인 '연대기적 한국사'를 기존의 2/3 시간으로 가르치라고 한다. 더군다나 사회과에 관심도 적고 6학년 담임을 원하지도 않았던 교사의 당황스러움은 배가된다.

아이들 또한 '사회'와 '사회과탐구'를 중심으로 수업하던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보충교재를 주며 3권의 교재로 수업을 받으라고 한다. 거기에는 이것은 5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며 넘어가고 저것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며 배운다. 새로운 교과서 내용에 익숙해질 즈음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해야한다. 왔다갔다 정신이 없다. 시간은 적는데 많은 내용을 빨리 가르치려는 선생님의 수업은 대부분이 조사발표학습, 또는 교사중심의 설명식 수업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암기를 바탕으로 한 지식 중심으로 출제되니 외워야 할 것은 대폭 증가했다. 설상가상 온 없는 학교(학급)는 시험에서 제외되었다가 갑작스레 포함된 '사회'의 전국단위 학력평가 표집학교로 뽑혀 시험까지 치러야 했다. 이 상황까지 가면 교사와 아동에게 2011학년도 1학기 사회과는 하나의 트라우마(trauma)다. 잊고픈 기억인데 주변에서 자꾸 나타나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

2011년 6학년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수업실천 주체들의 경험을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면 이들의 치유 또한 시급하다. 치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첫 출발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 문제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수용 양상, 그리고 문제상황속에서 재구성된 교육과정과 수업실천 양상, 그리고 그 결과 이들에게 남은 것을 두텁고 세심하게 듣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 어루만짐의 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2011학년도 1학기 6학년 담임을 맡은 전국 12개 시도 3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실천 양상을 설문조사 하였고, 그 결과 드러난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실천 양상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문제의 발단: 논거 없는 초등사회과 내용배열 원리의 적용과 행정중심의 대책

2011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문제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과 내용 체계표가 고시될 때 이미 다수의 교과교육자들과 현장 교사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교수요목기 이래 초등사회과는 인간과 시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라는 세 가지 사회인식의 통합적 틀을 각 학년에 고르게 배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회과 학년별 내용 구성도 실제로는 단원별로 시간, 공간, 사회가 명확히 구분되어져 초등사회과의 통합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학년 수준에서 최소한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학년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통합성마저 더욱 약화시켜 초등사회과의 통합성은 6학년을 마치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되어졌다. 역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3~6학년에 고르게 배치되었던 역사 영역의 내용을 4학년과 6학년에서 제외시키고 5학년에 집중시킴으로서 시간 관련 사회인식은 5학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이 당시의 명분이었던 중국의 동북공정문제와 일본의 독도망언 문제해결에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한국사 교육 강화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추수 연구 주제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내용 구성이 어떠한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이 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예견하고 준비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해 정리한 졸고(2008)는 2007 개정 교육과정 5학년 역사영역 집중현상은 논거 없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3영역의 타협의 결과물이라 비판한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내용선정과 배열 논리이며, 특히 초등 교육과정 내용은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가능성을 실증적 근거에 따라 내용 배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의 5학년 역사 집중은 다른 학년의 주제 중심적 역사 내용을 삭제하고, 5학년 1년에 걸쳐 연대기적 한국사를 집중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은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영역 책임자들이 교육과정 개발 시안 마감 일정과 자기 영역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한 타협의 결과물임을 비판한다.

<표 - 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내용(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역사영역	지리영역	일반사회영역		인간과 시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
3학년	◦우리가 살아가는 곳 ◦고장의 생활문화 ◦이동과 의사소통	◦우리 고장의 정체성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양한 삶의 모습		3학년	◦고장생활의 변화	◦고장의 모습과 생활 ◦고장생활의 중심지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한 노력
4학년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 ◦여러 지역의 생활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 ◦경제생활 선택과 바람직한 변화와 우리 생활	4학년	◦옛도읍지와 문화재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 ◦사회 변화와 가정생활
5학년	◦하나된 거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유교전통이 자			5학년	◦우리거래의 생활문화	◦우리 국토의 모습 ◦여러 지역의 생활	◦세계속의 우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 잡은 조선 새 ◦조선사회의 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운동 ◦대한민국의 발전 과 오늘날의 우리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가꾸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정보와 세계화 속의 우리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우리겨레 ◦새로운사회는 문화로 가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살아가는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역사영역의 내용이 5학년에 집중되게 되었을 때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만약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들이 이를 인식하였다면 교육과정 개발 시안 보고서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안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발 시안 보고서에는 이러한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당시 교육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예견했다면 교육과정 고시 이전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팀에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 보완 요구가 있었다는 기록 또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초등 교사들과 초등 현장 경험이 있는 소수의 사회과 교육자들이 교육과정 시안을 보고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이미 교육과정은 고시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과정 이행기 이러한 문제는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교육과정 적용 시점에 대책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이 크게 빗나가지 않음은 2011년 초등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에 대한 교과부 대책회의에서도 나타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일각에서는 2011년 6학년의 한국사 수업의 결손 문제를 언론을 통해 제기를 하였으나 이내 잠잠해 졌다. 하지만 2011년이 다가오자 언론의 비판과 현장의 요구가 더해져 교과부는 2009년 12월, 2011학년도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¹⁾ 이 회의에는 사회과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는데 다수가 공감한 최선책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6학년 적용을 1년만 늦추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상의 혼란을 없앨 수 있음은 물론 6학년 아동들도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거기에는 만약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된다면 이를 위해 소요되는 교사용, 학생용 보충교재 개발비와 인쇄비를 쓰지 않을 수 있는 1석3조의 방안이라 하였다. 물론 이 안에는 한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 법정 고시문서인 교육과정 고시를 번복함으로써 인한 교과부의 행정적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교과부는 후자 쪽에 비중을 둔 선택을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이의 혼란을 극복할 교사용, 학생용 보충교재의 개발 보급을 해결책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 의뢰해 2011학년도에 적용될 연간 교육과정안과 수업자료를 개발하게 하였고, '2011학년도 6학년 사회 교사용 지도자료'라는 이름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보급하였다(충청

1) 이 대책회의에는 필자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초등교사와 교과부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북도 교육청, 2010). 교사용 지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 5~6학년 내용의 중복 및 새롭게 추가된 내용 분석과 그에 따른 6학년 연간교육과정 예시안, 그리고 연간계획에 따른 교사용 지도자료로 구성되었다. 교사용 지도자료는 6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2007 개정 교육과정 지리와 일반 사회 영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먼저 배우고 그 후에 연대기적 한국사 내용을 가르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간 배당에 있어서는 1학기 51시간을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지리와 일반사회에 19차시를, 그리고 나머지 32차시를 한국사 수업에 배당하였다. 이러한 시간 배당은 기존 6학년 1학기 한국사 수업이 51시간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부족한 시간 배당이므로 학교, 학급 실정에 따라 사회 교과 시수를 증배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용 보충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도의 실제(수업자료)는 모두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방향과 유의점, 수업안, 수업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6학년 아동들에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7차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인정도서화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공하였다.

<표 - 2> 교사용 지도자료에 제시된 6학년 1학기 교육과정 재구성안

차시	학습 주제	지도유형		교사용 지도자료 번호
		A	B	
1	우리 국토의 영역 이해하기	○		
2	우리 국토의 위치적 장점 이해하기	○		
3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 변화	○		
4	우리 나라의 공업발달과 생활의 변화		○	1
5	교통과 도시의 발달		○	2
6	우리 나라의 인구성장과 인구구성		○	3
7	우리 나라의 인구 문제 해결		○	4
8				
9	우리 국토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10	자유와 경쟁에 따른 경제 발전		○	5
11	빠른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 살펴보기	○		
12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상호보완되는 환경 보존에 대해 토론하기	○		
13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	6
14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 경제적 노력 파악하기	○		
15	환경 기초 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알아보기	○		
16	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 사례 조사하기	○		
17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 탐색하기1	○		
18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 탐색하기2	○		
19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하기	○		
20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		○	7
21				
22	삼국의 성립과 발전		○	8
23	삼국과 가야의 문화		○	9
24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		○	10
25				
26	신라의 신분제와 문화		○	11
27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기틀 다지기		○	12
28	고려 역사의 전개 과정과 외침의 극복		○	13
29	불교 문화와 과학 기술이 발전한 고려		○	14

30	유교 국가 조선의 건국		○	15
31	조선 전기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		○	16
32				
33	조선 전기의 신분 질서와 생활 모습		○	17
34				
35	두 차례 전란의 극복		○	18
36				
37	달라지는 경제생활과 신분질서		○	19
38				
39	조선 후기 서민 문화		○	20
40	실학의 발달		○	21
41	양요의 극복과 척화비		○	22
42	강화도 조약과 개화 정책		○	23
43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	24
44	대한 제국의 수립과 근대 문물의 수용		○	25
45	국권침탈과 의병 운동		○	26
46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	27
47	민족문화 수호 운동		○	28
48	일제의 경제 침략과 수탈		○	29
49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30
50	6.25 전쟁과 분단		○	31
51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		○	32

※ 배경색 부분은 지리, 일반사회 영역. 지도 유형 A는 개정 교과서 활용, B는 교사용 지도자료 활용.

이후 교과부는 2010년 12월, 2011학년도 6학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통해 안내하고 관련 공문을 하달하였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 2011학년도 6학년 사회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역사내용의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학교, 학급 실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것,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증감운영하려고 할 때, 사회과의 경우 역사 누락을 감안, 최소 102시간을 확보하거나 증가하여 운영할 것 등이다. 이로써 2011학년도 교육과정과 수업의 운영은 단위 학교 6학년 교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표 - 3> 교과부의 2011학년도 6학년 사회 연간수업시수 운영 방안

구분	7차 6학년 교육과정		2007 개정 6학년 교육과정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영역	(역사)	(지리, 일반사회)	(지리, 일반사회)	(지리, 일반사회)	
배정시수	51	51	51	51	
교육과정 이행기 재구성에 따른 수업시수			(역사)	(지리, 일반사회)	51
			32	19	
총수업시간	102		102		*교육과정 내용 중 중복, 추가, 미이수 내용 분석에 따라 재구성한 결과임.

Ⅲ. 2011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실천 양상

교사용 지도자료와 학생용 보충자료를 개발, 보급하였다고 교사와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다. 초등 교육의 현실은 10개 교과와 1개의 창의적 재량활동 영역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 학년 배정 또한 2월말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6학년을 자원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2011학년도 사회 교육과정 재구성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교사용 지도자료가 연간지도 계획과 수업자료를 개발해 주었다고 해도 이는 하나의 지침일 뿐 단위 학교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그 효용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거기에는 2010년 교과부 공문에는 2011학년도 전국단위학업성취도 평가에 사회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였지만, 2011년 2월, 사회는 평가대상 교과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4월에 표집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교과에 포함되었다. 전국단위학업성취도 평가의 제외는 사회과의 입장에서는 교과의 지위와 영역, 권한이 약화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가에서 자유로운 다양한 수업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비록 표집이지만 사회과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교과에 사회가 포함되자 표집된 학교는 시험 대비용으로 연대기적 한국사 내용의 보충은 물론 지리와 일반사회도 동일한 비중으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2011학년도 6학년 교사들의 수업실천 양상은 정말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천된 2011학년도 6학년 1학기 사회과 수업의 다양한 양상을 정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12개 시도, 3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교육과정 이행기 다양한 사회과 수업실천의 맥락을 파악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기본사항(지역, 학교급, 경력, 사회과 관심도, 교과관, 교과서관, 재구성 정도, 주된 수업방법)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수업 관련 사항(재구성 인식 시기, 이에 대한 반응, 담임 맡게 된 이유, 시도 교육청 지침, 재구성된 수업시수, 행정적 지원 현황, 계획과 실천의 정합성, 주된 수업방법, 수업 후 교사와 학생의 반응, 변화된 사회과관 등)의 2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7월중에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지역 대표를 섭외해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대상자에게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주고 받았으며, 설문 결과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보완하였다.

1. 문제상황에 대한 사전 인식과 이에 대한 교사의 반응 관련

먼저 2011학년도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1학기처럼 재구성하여 가르쳐야한다는 것을 안 시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1년 6학년 배정을 받고 알게 된 교사가 17명, 43.6%를 차지하였다. 2011년 2월에 안 교사는 10%로 약 54%의 교사들이 2011년이 되어서야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르쳐야함을 알게 되었다. 과반수이상의 교사들이 당해 연도, 수업직전에서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2011년 이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들도 45%에 달한다. 10개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함과 더불어 특정 교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약 45%의 교사들은 2011년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표 - 4> 교육과정 재구성 사실을 안 시점

	빈도	%
①2011년 6학년 배정을 받고 나서	17	43.6
②2011년 2월 교육청 공문을 통해	4	10.3
③2011년 이전 언론 매체를 통해	5	12.8
④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 직후	11	28.2
⑤기타	2	5.1
	39	100

<표 -5> 2011학년도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이유

	빈도	%
①스스로 원해서	14	35.9
②신규, 또는 새로 전입해와서 선택의 여지가 없음	13	33.4
③교육과정 이행기 수업실천에 관심이 많아서	0	0
④학교 내적 상황 및 인사규정에 따라	10	25.6
⑤기타	2	5.1
	39	100

문제가 발생하기 전 문제발생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은 쉽게 예상될 수 있다. 사회과에 특별한 사명감이 있지 않은 한 회피하고 싶음은 인지상정이다. 6학년 담임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대부분은 학교 내외적 상황과 신규, 또는 전입으로 어쩔 수 없이 담임을 하게 된 이들이 23명, 59%로 가장 많았다. 스스로 원해서 담임을 하게 된 경우도 35.9%에 달했지만 이는 교육과정 이행기 사회과 수업실천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6학년 담임 자체가 좋아서 선택한 이들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2011학년도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실천 관련 6학년 담임 교사들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서 71.8%의 교사들이 현장에 이러한 혼란을 준 교과부와 교육과정 개발진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교육과정 이행기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교육과정 개정 문제는 교사의 권한을 넘어선 일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했다는 현실적 수용 의견도 각각 5명씩, 총 25.6%를 나타내었다. 사려 깊지 못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현실적 수용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소외된 초등교사의 무기력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2.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실천 관련

허탈해도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 작업을 위한 첫 단계인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과부의 지침은 역사수업 결손 최소화, 학교 실정에 따른 시수 편성, 연간 최소 102시간 확보였다. 이에 따라 편성된 12개 시도 지침은 첫째, 학교실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33.3%), 둘째, 102시간에 맞춰 운영할 것(41%), 셋째, 102시간보다 많게 운영할 것(25.6%)의 세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선에서 교과별 수업시수를 증감할 수 있으나 사회과 수업시수를 감축한 지침은 없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6학년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청 지침을 따랐는데 102시간에 맞춰 교육과정 시수를 편성된 학교가 16개교 41%였다. 하지만 몇몇 학교에는 지침보다 많게,

또는 적게 수업시수가 편성된 학교도 있었다. 102시간보다 증가하여 편성한 학교가 17개교 43.6%였고, 102시간보다 적게 편성한 학교도 4개교 10.6%나 있었다. 한편, 증가된 교육과정 시수는 대부분 타 교과 시수 또는 창의적 재량활동 영역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재구성된 교육과정 시수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별 배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과부 지침 및 교사용 지도자료에 따르면 51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역사영역에 32시간, 지리영역에 4시간, 일반사회 영역에 15시간을 배당하였다. 이러한 지침과 교육청 지침을 수용하여 단위학교에서 편성한 영역별 배당 시수는 다음과 같다.

<표 - 6> 지역별 사회과 영역 수업배당 시수²⁾

지역	학교	영역별 수업시수			합계
		역사	지리	일반사회	
서울	A	35	10	10	55
경기	A	37	9	11	57
	B	32	9	18	58
	C	39	10	10	59
경남	A	30	10	15	55
제주	A	42	11	13	66
	B	17	17	17	51
울산	A	27	9	18	54
충남	A	27	0	27	54
	B	32	13	6	51
인천	A	35	8	8	51
	B	39	0	16	55
전남	A	36	11	4	51
부산	A	32	0	19	51
대구	A	30	9	15	54
10개 지역	15개교	최소17-최다42 시간	최소0-최다17 시간	최소6-최다27 시간	최소51-최다66 시간

이 결과에 따르면 역사영역은 최소 17시간에서 최다 42시간을 배당하였다. 지리 영역에는 최소 0시간에서 최다 17시간을, 일반사회 영역에는 최소 6시간에서 최다 27시간을 배정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된 이유가 역사영역의 수업 결손 보완임을 감안할 때, 울산A, 충남A, 대구A교를 제외하고는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 수준에 따라 수업시수를 편성하였다. 지리 영역 관련 시수에 있어서는 교사용 지도자료가 4시간 편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비해 인천B, 부산A교를 제외하고는 최소 8시간에서 최다 17시간으로 시수를 증가하여 배정하였다. 그리고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전남A, 인천A, 충남B, 경기A, C, 서울A를 제외하곤 교사용 지도자료의 권고 시수에 따르거나 그 이상 시수를 배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최소 교육과정 시수인 51시간을

2) 지역별 사회과 영역의 수업배당 시수는 설문조사 결과 무응답, 1학기가 아닌 1년 시수를 기록한 사례를 제외하고 10개 시·도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기준으로 5~10% 시수를 증가한 학교가 다수였고, 제주의 A 학교만이 15시간을 증가하여 편성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볼 때, 7차 교육과정에서 1학기 51시간에 걸쳐 가르쳤던 연대기적 한국사 영역을 32시간에 가르쳐야한다는 모순된 전체를 감안하더라도, 32시간 보다 적게 수업시수를 배당한 학교의 경우 연대기적 한국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 졌을 지가 의문시 된다.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 영역에서 0시간을 배당한 학교와 일반사회 영역에서 15시간 이하를 배당한 학교의 수업은 다른 영역의 수업이 풍부히 이루어 졌거나, 부족한 영역의 실제 수업은 과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학교의 수업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본 설문 문항 중 2011학년도 1학기 교사들의 주된 수업방법을 제시하라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사중심의 설명식 수업, 조사토의·발표학습, 직접교수법과 협동학습이 주된 수업방법과 기법임을 감안할 때, 이들 교사의 수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기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상황 이전에도 사회과의 대표적인 수업기법, 또는 패턴이 위와 같음은 볼 때, 이 시기에는 많은 내용을 보다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국어과 낱말풀이식 수업, 교사중심의 설명, 조사발표학습, 직소 학습이 광범위하게 실천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표 -7> 주된 수업방법이 교사중심 설명, 조사발표, 협동학습, 직접교수법인 이유

	빈도	%
①시간부족으로 많은 내용 빠른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	26	66.7
②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2	5.1
③선택한 것이 원래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기에	5	12.8
④다양한 수업방법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기에	3	7.7
⑤기타	3	7.7
	39	100

이와 같은 수업실천을 위한 교과부나 교육청 단위의 지원은 단순했다. 교사용 지도자료와 학생용 '우리나라의 역사' 책을 배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고(37명, 94.8%), 교육청 차원의 연수나 학년별 워크숍 등을 개최한 곳은 대전과 서울, 대구지역이었다. 배부된 교사용 지도자료의 활용은 주로 연간교육과정 수립과 수업자료로 활용되었다. 교사용 지도자료의 경우, 한정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지도자료내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배부된 교사용 지도자료에서는 사진, 삽화 자료 등이 빠져 수업자료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져 교사들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이처럼 계획된 교육과정이 계획대로 실천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100% 계획대로 운영되었다는 지역(20.5%)이 있는가 하면, 5%이내, 5~10%, 10% 이상의 수정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는 곳도 각각 28.3%, 20.5%, 30.7%가 있었다. 변경의 주된 이유들로는 학기 초 편성한 교육과정이 자신의 실제 수업 진도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19명, 48.7%), 부분적으로 학교행사,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교육청 지침의 변경 등이 각각 5명 12.8%, 7.7%, 5.1%였다. 한번 수립된 교육과정의 실천은 외적인 영향에 의해 바뀔 수도 있지만 담임교사의 수업변수가 가장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실천 결과에 대한 반응 관련

이와 같은 수업실천에 대해 아동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아동 대부분이 복수의 교과서를 왔다 갔다 하는 수업으로 인해 혼란스러움과 함께 내용양 과다와 수업시간 부족으로 힘들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24명, 61.5%).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재구성과 관계없이 사회과 수업을 힘들어했다는 평가도 12명, 30.8%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2011년 사회과 수업은 힘든 사회과라는 기존 이미지와 함께 혼란스럽고 힘든 사회과라는 추가적인 이미지도 얻게 되었다.

아동들의 이러한 반응과 함께 교사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다양했다. 1학기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실천 경험이 사회과 교과관에 준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현실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초등교사의 현실에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평가(15명, 38.5%)와 함께 사회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저하되었다는 평가(11명, 28.2%)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나만의 학급, 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이거나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과정에 더욱더 관심의 증대되었다는 평가도 12명, 30.7%가 있었다. 트라우마가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 변화의 촉매제 역할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8>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과 사회과관의 영향

	빈도	%
①사회 교과에 대한 관심 더욱더 저하	11	28.2
②나만의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 시도	4	10.2
③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관심 증대	8	20.5
④교육과정 개정 참여 불가한 초등교사의 무기력감 확인	15	38.5
⑤기타(무응답 포함)	1	2.6
	39	100

IV. 결론 및 제언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 측면에서 볼 때, 교수요목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교육과정 중의 하나다. 이러한 변화는 2011학년도 6학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대기적 한국사 영역의 보완이라는 문제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과부의 대응은 사려 깊지 못함, 행정의 일관성과 엄정성을 우선으로 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2011학년도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실천 문제는 교육청을 징검다리로서 온전히 교사에게로 넘어갔다. 교사들은 행정적인 지침과 학교, 학급의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실천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근본적으로 많은 내용에 비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실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특정 영역의 수업 시수는 증배되는가 하면 특정 영역의 수업은 중복의 이유로 한 시간도 배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수업실천은 교사중심의 설명식 수업과 조사토의학습, 협동학습의 하위 모형인 직소, 직접 교수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짧은 시간 내 가장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업방법, 기법들이다. 여기에도 몇몇 지역에서는 표집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학력평가 대비를 위해 교육과정을 학기 중에 다시 수정하기도 하였다.

문제상황만으로 교사들의 비판과 불만을 가져왔을 2007 교육과정이 실천 속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아

동들에게도 힘든 사회과, 혼란스런 사회과가 되었고, 이로 인한 흥미저하, 무관심, 교과 자체에 대한 무기력감을 증배시켰다. 다행히도 이러한 난관이 사회과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경우도 있었다. 좋은 범례를 많이 제시하지 못할지언정 반면교사(反面教師)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개운치 않다.

2011학년도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천 경험을 통해 많은 교사들의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교육과정 개정과 같이 거대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 일련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음에 공감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보의 빠르고 명확한 공개와 왜 그러한 변화가 의미 있는지를 두텁고 세심하게 이해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현장의 상황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장을 충분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과의 본질에 맞는 아름다운 교육과정, 아름다운 수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 만약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변화 주체들의 두텁고 세심한 이해와 준비 속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현장은 이상과 실천간의 드넓은 괴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픔을 경험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괴리의 확인과정은 주체들을 능동적인 도전의식에 더해 발전적 변화의 길을 모색하게 하기보다 현실적 적응의 길을 찾게 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8월 현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모두 개발되어 전 학년에 적용되는 첫해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은 3-4학년과 5-6학년을 별도의 학년군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이 아니라 초등역사, 초등지리, 초등 일반사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개발 과정을 보면, 2011년 2월에 개발팀을 공모하고 6개월 후인 8월에 교육과정 개발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7차 교육과정 개발 이후 교육과정 개정은 전면적, 일시적 형태가 아닌 수시적, 보완적 형태로 진행하려는 교과부의 원칙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아무리 수시, 보완을 전제로 하여도 실제 교육과정 개정 양상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면적, 일시적인 형태로 급작스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 5일제 수업실시 준비를 위해 총론 수준의 부분 개정을 의도했던 2007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이 교수요목기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교육과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현장 교사와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당장 초등사회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6개월간의 짧은 연구기간을 통해 개발될 2011 교육과정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성전 아닌 성전의 지위를 가진 교과서에 대한 우려는 10개 교과와 창의적 재량활동을 모두 가르쳐야하는 초등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의 우려로 이어진다. 새로운 변화에 따른 도전 시점에 또 다시 다가온 출발선을 보고 있는 초등사회과의 현실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이유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재구성의 트라우마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

< 참고 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10), 사회 6-1, 두산동아.
- 교육과학기술부(2010), 사회 교사용지도서 6-1, 두산동아.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0).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영석(2006). 현행 국가교육과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사회과교육연구」, 13권2호.
- 김영석(2005). 제7차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과의 해체, 「사회과교육연구」, 12권2호.
- 김정호(2006), 사회과교육과정 개정(시안)연구개발, 주 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연구위탁과제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상준(2005). 「초등사회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차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박진동(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동원(2008), 2007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논쟁점과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15권 2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정길용(2007). 2007년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14권3호.
- 충청북도교육청(2010), 2011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사용 지도자료, 일광.
- 홍미화(2011), 2007 개정 사회교과서 적용에 따른 초등교사의 사회 수업변화, 사회과교육연구, 18권 2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